

# 3.1의 메아리가 새겨주는 진리

3월 1일은 지금으로부터 103년 전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야만적인 《무단통치》에 항거하여 전민족적인 반일애국투쟁의 불길지른 력사적인 날이다.

무력에 의한 위협과 공갈로 《을사 5조약》과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식민지화한 일제는 중세기적인 공포정치, 총칼통치로 우리 민족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강제로 빼앗고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원과 재부를 다치는대로 약탈하면서 온 조선팔을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전변시켰다.

날강도적인 군사적강점과 식민지괴뢰통치에서 모진 수모와 학대, 가혹한 탄압을 받으며 고통과 불행만을 당해온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는 일제에 대한 원한과 울분이 쌓이고 쌓였으며 그것은 마침내 전민족적인 반일항쟁으로 폭발하게 되었다.

지금도 귀기울이면 그때 삼천리에 메아리치던 《조선독립 만세!》의 합성이 생생히 울려온다.

은 거레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 민

족의 자주권을 위해 항쟁의 대하에 뛰어들었다.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고 빈부귀천의 격차가 없었으며 신앙과 정견의 차이가 없었다. 은 거레가 한목소리로 웨친 독립의 만세소리는 삼천리의 지경을 벗어나 민주와 상해, 연해주, 일본, 화야이 등 조선사람이 사는 해외의 어느곳에서나 울려퍼졌다.

3.1인민봉기를 통하여 조선민족은 결코 남의 노예로 되기를 원치 않으며 독립을 쟁취하여 버려야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려는 열망과 굳센 의지를 가진 민족이라는것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그러나 온 민족이 《조선독립 만세!》를 퍼뜨리지 불렀으나 독립의 아침은 오지 않았다.

오리려 삼천리의 방방곡곡은 일제의 총에 맞고 칼에 찔러 흘리는 겨레의 피로 붉게 물들었다.

일제가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3.1인민봉기 전기간에 무려 10만여명이 쓰러졌다. 3.1인민봉기를 힘없는 정의는 무색하며 맨손으로 받들

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타승하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없다는 피절은 교훈을 력사에 남겼다.

3.1인민봉기의 절규는 오늘날도 우리 민족에게 십나라오랑캐들의 재침책동에 각성하고 각성하며 정의의 힘을 천백배로 다지라고 일깨워주고있다.

과거의 죄악에 대해 사죄도 배상도 거부하고있는 일본은 령토강탈책동과 과거사부정을 능사로 하면서 호시탐탐 재침의 기회를 엿보고있다.

내외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전차에 집단적으로 물러가 참배놀음을 벌이며 군국주의명령을 부르는가 하면 《방위백서》와 력사교과서에 독도를 《일본고유의 령토》라고 빼앗기며 명기하면서 신성불가침의 조선민족의 령토를 강탈하기 위해 분별없이 날뛰고있는 일본이다.

부정의 폭력에는 정의의 힘으로. 이것은 3.1인민봉기가 남긴 피의 교훈이며 오늘 재침으로 줄달음치는 군국주의후예들의 광기를 보며 우리 민족이 되새기는 진리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핵전쟁위협 무뎠음  
화생무균  
치부하구  
미군



얼마전 남조선의 한 언론은 해마다 미국에 설계바치는 이른바 《방위비분담금》이 비법적으로 미국의 군수기업에 전용된 사실을 폭로하였다.

실제로 어느 한 기업은 명색은 남조선기업으로 되어있지만 실제 주식의 대부분을 미국이 가지고있어 사실상 미국기업이나 마찬가지라고 한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30년간 이 기업에 775건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주었으며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억 5 112만US\$에 달한다고 한다.

남조선당국이 《방위비분담금》의 명목으로 해마다 천문학적수자에 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혈세를 미국에 설계바치고있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이 1990년대초부터 남조선당국과 주기적으로 미군유지를 위한 《분담금특별협정》이라는것을 체결해왔으며 새로 협정을 체결할 때마다 남조선당국을 압박하여 그 액수를 계속 불어왔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군유지비가 2013년에 《방위

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 첫 시기에 비해 8배이상으로 불어났으며 지난해에는 무려 10억 9 500여만US\$에 늘어난 사실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미국은 이렇게 강탈해낸 엄청난 액수의 돈을 공화국을 목표로 하는 북침전쟁책동에 쏟아붓다 못해 저들의 리속을 차리는데 제멋대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지난 시기 남조선강점 미군이 《방위비분담금》으로 갖아간 돈을 호화주택과 미2사단기념관, 미군기지의 식당건설과 미군기지이전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 자기들이 리용하는 호텔직원들의 로임을 지불하는데 쓰거나 은행에 예금해놓고 변변치않은것까지 하며 막대한 자금을 끌어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주고있다.

언제인가 남조선의 한 출판물은 남조선강점 미군유지와 관련하여 이렇게 썼다.

《세계적으로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미군기지사유료를 받아내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일방적인 협정들을 체결하여 남조선에 《방위비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미군유지비용을 부담시키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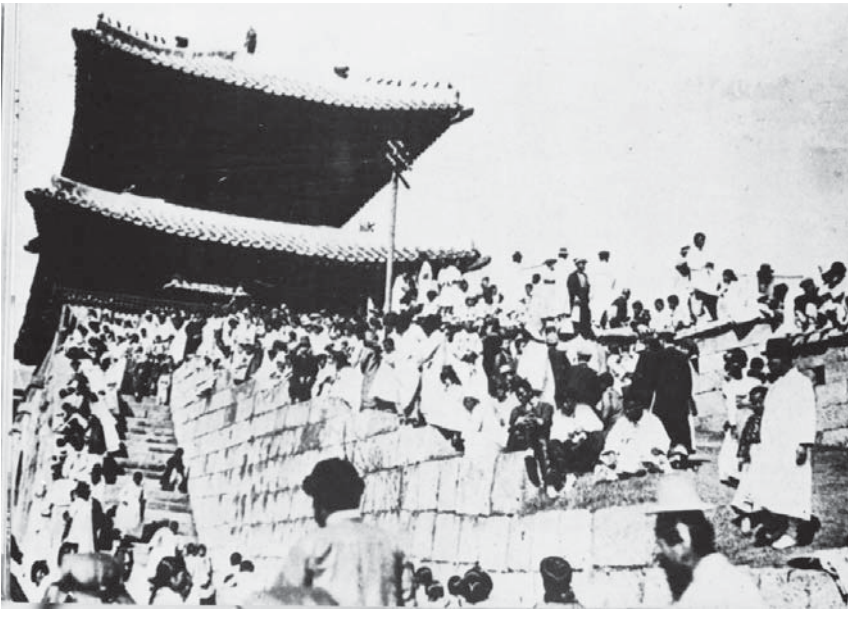
미국은 이렇게 빼앗아내는 《방위비분담금》의 간판 밑에 미국에 설계바치는 막대한 돈은 미군의 북침전쟁책동비용으로뿐 아니라 치부금으로, 향락금으로 전용되고있는것이다.

실태가 이러함에도 력대 남조선의 위정자들은 이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고있으며 오리려 해마다 《방위비분담금》을 늘일것을 강박하는 미국강점에 굴복하여 막대한 혈세를 설계바치고있다.

남의 집에 뛰어들어 강도가 거꾸로 주인을 《보호》한다며 돈을 받아내고 그 돈으로 흥청거리는 기막힌 현실은 미국식외안성과 날강도적행태, 남조선위정자들의 친미사대행위 가 빛낸 비극이 아닐수 없다.

사실들은 미국이 운운하는 남조선과의 《동맹》이란 오로지 저들의 침략적목적과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지배와 약탈의 울기미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김상규



# 파쇼독재후예들의 퇴하지 않음이 폐전



여기에 한장의 사진이 있다.

만사람을 경악케 하는 이 사진은 지난 2월 27일 《국민의힘》의 강배들이 《전쟁반대》를 제치며 1인시위를 하던 녀성을 폭행하는 민행을 촬영한 동영상의 한 장면이다.

이미 지난 2월 22일에도 《국민의힘》것들은 충청남도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주장하며 1인시위를 하던 녀성에게 폭력을 휘두른 바 있다.

그때 그녀성이 든 표말에는 《선제타격 권 말입니까》라고 씌여져있다고 한다.

《국민의힘》것들은 녀성들의 이러한 시위가 저들의 집회에 방해가 된다고, 시끄럽다고 하여 쌍욕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른것이다.

악한들에게 못매를 맞고 땅에 질질 끌리우는 녀성들을 보면서 되새겨지는것은 무엇인가.

생존권을 요구하여 통성을 벌리던 쌍룡자동차의 로동자들을 몽둥이로 무참히 때려 쓰러뜨리고 미국산 미친 소고기수입을 반대하여 유모차를 끌고 거리에 떨쳐나 시위를 벌리던 녀성들에게 최루액을 퍼붓던 파쇼불한당들, 무고한 꽃말을들을 수장해버린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해자유가족들에게 《시체장사를 한다》고, 《뼈를 발라먹고 징글징글 회쳐먹는다》고 지껄여대던 《새누리당》패거리들의 극악하고 반인륜적인 짓거리이다.

이 회세의 악한들, 인간추물들의 후예가 바로 오늘의 《국민의힘》패거리들이다.

피는 속일수 없고 독사는 혀울을 벗어도 독사라고 반인민적악정과 폭정을 생존방식으로 삼아온 파쇼독재자들의 배설물이 다름아닌 오늘의 《국민의힘》패거리들이기에 저들의 권력쟁탈책동을 방해한다고 적수공천의 녀성들을 폭행하고 길레잡던지듯 내동댕이치는 망동도 거리낌없이 감행하고있는것이다.

정당한 요구를 하는 녀성들을 폭행하는 《국민의힘》강배들의 행태는 《공정》과 《정의》, 《민주주의》를 부르는 《국민의힘》의 진면모, 보수패당의 본색을 여지없이 그대로 드러낸것이다.

이런 악한, 파쇼독재후예들이 권력을 쥐면 정의와 진리를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을 무참히 탄압할것이라는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광주를 피마더에 잠근것처럼, 김정책

# 《1월 한달에만 로동자 36명으로 동재 해로 사망》

《2022. 1. 29(토) 양주 채석장내 천공작업중 토사붕괴피하여 천공기 2기, 굴착기 1기 조작하던 작업자 3명이 토사에 매몰됨. (1명 구조중, 2명 구조중) 피해 현황 파악중.》

설련후 첫날인 1월 29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사망사고속보) 게시판에도 사고소식이 또 짧게 갱신됐다. 사고경위와 사망자수를 짧게 알리는 이 게시판은 한국사회에서 일하다 죽은 이들의 《부고》를 령상케 한다. 2022년만 해도 양주채석장사고이전까지 33명이 끼이고 깔리고 떨어져 숨

졌다. 2월 2일 마지막 실종자가 발견되며 양주채석장 사고의 피해현황은 (사망자 3명(28살, 52살, 55살))으로 수정됐다.

2022년 1월 한달 로동자 36명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들의 죽음은 대부분 (사망사고속보)에 게시되는 한두문장안에 갇혀 공론화되지 않는다. 간혹 어떤이들의 죽음만 (죽음의 위주화)나 (무너진 청년의 꿈)같은 수식어를 동반하고 사회적조명을 받는 다. 대부분은 계속 올라오는 《사망사고속보》에 밀려 사라진다. 사고의 원인



TV국 《지금 우리 학교는》도 역시 그러하다고 한다.

TV국은 재선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학생들과 수시로 학교에서 폭행을 당하는 학생들, 오로지 남을 디고 올라서야 살수 있다고 경쟁만을 강요하는 교원들, 《어 나래를 접어야 하고 설사 학교에 입학했다고 해도 마들림과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의 길을 택하여야만 하는것이 바로 남조선의 현실이다.

친구들로부터 마들림을 당하던 중학생이 못매를 맞

고 견물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 너학생이 일기장에 《왜 나를 괴롭히는걸까? 왜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걸까? 못된 인간들, 복수하고말거야!》라는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등은 남조선에서는 비밀비제한 일로 되고있다.

돈없는 아이들은 배움의

이 생존방식으로 된 사회, 남의 눈물을 자기의 리익으로 갈취하는 개인이기주의와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고 지배하는 비인간적관계만이 존재하는 사회가 바로 남조선 사회이다.

하기에 이미전에 남조선을 가리켜 《헬조선(지옥한국)》, 《지옥불반도》라고 부르는 오명들이 생겨난것이다.

사회가 이러할진대 학교라고 달리될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지옥같은 사회, 지옥화된 학교에서 생존경쟁에 몸부림치는 학생들, 이것이 바로 남조선 사회이고 달라질수 없는 남조선의 미래이다.

본사기자 김광혁

# 침략의 안내자



남조선에서 《국민의힘》의 《대통령》선거후보 윤석열의 망언이 도를 넘어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고있다.

무분별하고 황당한 《대북선 제타격》, 《(싸드) 추가배치》와 같은 망발로 하여 남조선 각계층으로부터 《전쟁광》, 《미치광이》로 지탄받고있는 윤석열이 얼마전에는 《국민을 친일과 반일로 갈라 한일 관계를 과거에 묶어두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일본과 미래를 함께 열겠다》고 지껄이다 못해 《안보》를 운운하며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조선반도진출》에 대해 떠벌었다는것이다.

추악한 친일매국노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망발이 아닐수 없다.

그러니 십나라속속들도 윤석열이 《한일관계강화에 의한 대북역력강화를 주장하고있다》,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사도광산문제를 비롯하여 과거사문제에서는 윤석열과 협상이 가능하다》고 반색하고있는것이다.

일본의 퍼미린 과거죄악을 무마해주고 《미래지향관계》를 떠벌이는 윤석열과 같은 사대매국세력때문에 우리 겨레에게 세기를 이어오며 헤아릴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천

# 여지없이 드러난 특등사대매국노의 본색

연속적인 십나라쪽발이들이 감히 우리 민족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천연스레 넘겨주고 조선민들을 제다짜꼬로 또다시 짓밟을 망상을 하며 재침관란을 일으키고있는것이다.

《안보》를 구실로 일본 《자위대》를 끌어들이겠다는 윤석열의 행태는 《국권을 보충하고 민족을 위해》서 라고 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왜나라에 통째로 내맡겼던 을사5적의 매국행위와 조금도 다름없었다.

윤석열이 친화적적을 비

호하는 《국민의힘》을 비롯 대관을사5적, 민족의 명부에서 한시바베 들어내야 할 특등사대매국노들이다.

본사기자 함글속

